제42호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 조

발행일/2006년 4월 7일 (금)
발행인/전창진 편집/길소희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http://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1. Creation (13) 시간과 공간에서의 복음 - 이종헌 역 2쪽
2. IMPACT (28) 유신론적 진화론과 창조-진화논쟁 - 길소희 역 6쪽
3. 창조설계의 비밀 (10) 제10장 - 이종헌 편저 10쪽
4. 참 아름다워라! (13)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진화? - 서종학 15쪽

인 사 말

샬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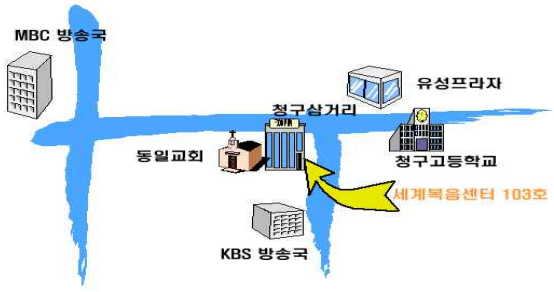
이제 땅 밑에서 꿈틀거리며 노란 새싹들이 제자리를 찾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땅 위로 나설 채비를 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롭고 싱그러운 봄기운을 맡으며 올 한 해의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여러 사상들이 쨍쨍 내려쬐는 햇빛처럼 우리를 태우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속 문화들이 세찬 바람처럼 우리를 한 번에 모두 날려 보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청지기적 사명이 있기에, 쨍쨍한 햇빛과 세찬 바람에서도 의연하게 견디어내며 이 땅에서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김경찬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6년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 : 5월 4일)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 (053) 743-6058
내용: 베리칩(Verification Chip)이란 무엇인가 - 토론 ('창조설계의 비밀' 8장 - 성영관)



Creation지 (13) 시간과 공간에서의 복음 (Russel Grigg, Creation Vol. 21, No. 2)
이종헌 역 (경일대 교수, 토목공학, cc0005@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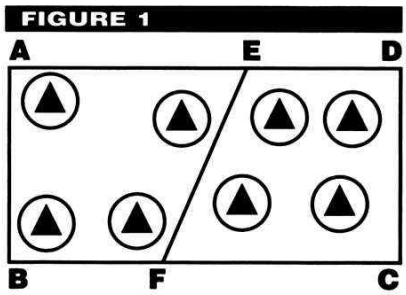
시간과 공간에서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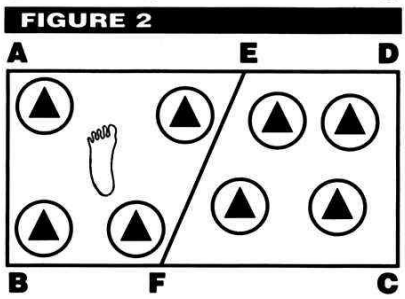
현대과학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3차원(길이, 폭, 높이)이 실재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개념에 어려움이 없다. 이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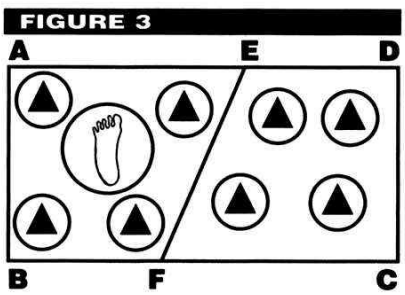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에 거하시며(사 57:15), 하늘에 거주하시고(예, 신 26:15), 또한 빛에 거하신다고(딤전 6:16) 말해준다. 편의상 우리는 이것을 합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차원 또는 영원의 차원에 거주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3차원 공간(길이, 폭, 깊이)과 1차원 시간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1)]

비록 하나님이 영원의 차원과 우리가 사는 우주에 편재하시지만(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셨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시에 물 위를 이동하셨으며(창 1:2), 여호와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출 3:4-14), 아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실 때에 영원의 차원을 떠나서(요 1:1-2, 빌 2:5-7)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마 1:18, 눅 1:35, 요 1:14).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문이 닫힌 방에 두 번 나타나신 것이 포함되며(요 20:19-30),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의 차원으로 돌아가셨다(요 20:17, 행 1:9).

이 글의 목적은 평지(Flatland)의 우화를 이용하여 이들 현상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2)]







평지(Flatland)

길이와 폭을 가지며 높이가 없는 2차원의 땅을 생각해 보자. 이를 평지(Flatland)라 부르며 그림 1에서 ABCD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 ▲로 표시된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는데, 그들 모두는 역시 2차원만을 점유한다. 어느 날 평지의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 미지의 사람이 자기들 땅을 가로질러 선 EF를 그려 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들의 나라를 사실상 두 개로 갈라놓았다. 왜냐하면, 높이의 차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도 그 선을 뛰어 넘거나 그 밑으로 터널을 뚫거나 하여 다른 쪽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저쪽에 있는 사람과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따라서 EF는 사상(事象)의 지평선(event horizon)이다(부록1. box 안의 글을 보라).[3)]

(부록1)블랙홀과 사상의 지평선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 그들의 우주선은 속도가 소위 탈출속도라고 하는 11.2km/sec(25,000mph) 이상이어야 했다.[1] 그래야만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질량이 충분히 큰 항성을 생각해 보자. 그 중력이 매우 커서 탈출속도가 빛의 속도인 300,000km/sec (186,000 miles/sec)이 되기 전까지는 중력 붕괴(천체가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해 가는 현상)를 받는다고 생각하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원리로 예측해 보면 그러한 영역에서는 공간이 매우 만곡되어 빛이나 혹은 그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항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근처에 있는 물질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으로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블랙홀이 될 것인데,[2] Stephen Hawking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력이 매우 강해서 그것으로부터 심지어 빛까지도 탈출할 수 없는 공간-시간의 영역'.[3]

빛의 광선이 밖으로부터 블랙홀 근처로 향한다면, 블랙홀의 중력 인력에 의하여 편향될 것이며, 아주 근접한다면 블랙홀 주변의 궤도로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블랙홀로 향한다면, 흡수될 것이다.)

블랙홀의 경계, 즉, 외부로부터의 빛이 궤도로 들어오는 곳, 또는 블랙홀 안으로부터 빛의 광선이 탈출하기를 실패하는 그곳을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한다.[4,5] 그것은 블랙홀 주변의 돌아오지 않는 점을 나타낸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어떤 사상의 발생이라도 전달할 수단이 없으므로, 아무런 사상도 이 영역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그 밖에 있는 관측자가 알 수 없으므로 과학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현상을 '우주의 검열(censorship)'이라고 한다.

각주와 노트

1. 탈출속도란 동력이 없는 물체가 행성 또는 항성의 중력장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이다. 그것은 다음 식 $v_e = \sqrt{\frac{2GM}{R}}$로 주어지며, 여기서 G는 만유인력상수이고, M은 행성 혹은 항성의 질량이며, R은 그 반지름이다.
2. '블랙홀은 단순한 이론적인 개념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수많은 실험적 증거로서 뒷받침 된 일반상대성으로부터 직접 예상한 것이다.' Russell Humphreys, *Starlight and Time*, Master Books, CO. 80936, USA, 1994, p. 22.
3.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Bantam Books, London, 1988, p. 194.
4. Ref. 3, p. 90.
5. 블랙홀 주위의 사상의 지평선의 반지름을 Schwarzschild 반지름이라고 하며, 다음 식 $R_s = \frac{2GM}{c^2}$로 주어진다. 여기서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이다. 그것은 독일의 천문학자 Karl Schwarzschild(1873-1916)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는 1916년에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 붕괴된 항성체의 존재를 예측했다. 만약 태양이 블랙홀로 붕괴된다면 그 사상의 지평선의 반지름은 3km(2miles)밖에 안될 것이다.
6. Ref. 3, p. 93.

어느 날 ABFE 영역에 어떤 모양(발자국의 외곽선)이 나타났는데(그림 2), 평지사람이 생각하는 한 그것은 분명히 저절로, 그리고 아무 원인이 없이 생겨난 것이다. 다음번에 그 모양이 다시 나타났을 때, 평지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 주변에 선을 그렸다(그림 3). 2차원에 사는 평지사람들에겐 이것이 사상의 지평선이었으며, 이는 원으로 둘러싸인 영역에서는 밖으로 아무것도 나갈 수 없고 그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의 일부를 제거하고 조사해 보았을 때 그 모양은 사라졌다. 이제 평지사람들은 세 가지의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1. 그 모양은 아무런 원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2. 그 모양은 사상의 지평선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았다.
3. 똑같은 사상의 지평선이 평지사람들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를 찾은 사람은 별난 성격을 가진 Zweisteinus 박사이다. 그는 먼저, 평지사람들에게 그들이 과학적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즉, 그들은 평지의 2차원이 일반적으로 현실을 표현하는 전부라고 믿었으며 그들의 생활양식은 이러한 비진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평지는 단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길이와 폭이라는 2차원 이외에 최소한 세 번째 차원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지적해 준다고 말한다. 그는 이 세 번째 차원을 '고도' 또는 '깊이' 또는 '높이'라고 했다.

그는, 발바닥 모양을 만들었던 3-D의 존재는 2-D의 감옥(2-D의 사상의 지평선) 위로 발을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거기로 들어가기도 하며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3-D의 존재는 2-D의 평지사람들이나 구속시키는 2-D의 장벽에 못 들어가거나 못나올 수 없다. '2차원은 3차원의 인질을 잡아두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낮은 차원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외의 차원이 있어야만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2] 따라서 3-D의 존재는 평지에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으며, 평지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평지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부 ▲까지도 볼 수 있다.

이제 차원 이론(dimension theory)이라는 이 개념을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시키자.

창조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간과 시간의 밖에서, 그리고 그것(공간과 시간)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즉, 말씀(Logos)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다(요 1:1 그리스어 *logos* = 말씀). 즉, 모든 창조는 '창세전에'(엡 1:4, 벧전 1:20)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으며, 따라서 영원의 차원에 존재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및 능력)를 사상의 지평선을 통해, 각각의 양 또는 분량만큼씩,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에 걸쳐 보내셨는데, 이 사상의 지평선은 영원과 공간-시간을 가르는 것이다.

(부록2)찬 사

여기서 제시한 평지(Flatland), 가외의 차원(extra dimensions), 사상의 지평선(event horizon) 등의 개념은 1987년에 고(故) Arthur E. Wilder-Smith 박사-교수(1915-1995)가 쓴 책, *The Scientific Alternative to Neo-Darwinian Evolutionary Theory*에서 나온 것이다.

Wilder-Smith는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의 동년배 가운데 거물로서, 세 개의 박사학위를 얻었다. 7개 국어를 마스터한 그는 또한 창조과학에 대한 최초의 사상가이며 위대한 개척자 중의 하나이다.

기타 잘 알려진 그의 작품으로는, *Man's Origin, Man's Destiny, He Who Thinks has to Believe, The Creation of Life, The Natural Sciences Know Nothing of Evolution* 등이 있다.

Flatland에 대한 생각은 (비록 기독교인이 적용하지 않았지만) 1884년에 Edwin Abbott가 *Flatland: A Romance of Many Dimensions*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다.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는 (차원적으로 말할 때) 혼성물(hybrid)이었다. 에덴동산에서 그는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므로, 따라서 그는 여러 차원의 영원에 대한 일부를 체험하였으나, 그는 역시 공간-시간 안에 존재했다. 그가 하나님께 불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창 3:22; 3:24) 막으셨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 아담의 죄가 인류로 하여금 하늘의 차원에 도달하게 하는 사상의 지평선을 닫아버린 반면, 죄 용서하심은 이 사상의 지평선을 열어놓는다. 이 용서는 죄의 값을 치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다. 이것은 오직 각 개인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데(요 1:12; 17:23), 아담이 원래 가졌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다음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다.

부활 – 예수님이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그분의 부활하신 육체는 이 공간-시간 세상을 떠나셔서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수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통과하셨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감겨져 있어서(즉, 여전히 감긴 채, 시체를 썩지 않게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몰약과 향료의 끈적거리는 혼합물로 인하여 뻣뻣한 채로), 사도 요한은 이를 보고 부활을 믿었다(요 19:39-40; 20:7-8). 비록 요한은 차원 이론을 몰랐을 테지만, 그는 사실상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초월하셨다는 것을 실감했다. 평지에서의 발자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 사상의 지평선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문이 잠긴 방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실 수도 (예를 들면, 엠마오 도상에서처럼) 있다.

승천하실 때(행 1:9) 예수님은 공간-시간과 천국의 사이에서 사상의 지평선을 통과하셨다. 지금은, 신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은, 믿음에 의해 신자들에게 거하는 성령을 통하여, 올라가신 주 예수님께 다가간다(요 14:16-17).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

사람이 죽을 때 그의 혼(soul)과 영(spirit)은 죽음이라는 사상의 지평선을 통과하여 이 공간-시간의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공간 및 시간이 끝나고 시간의 초월이 시작하는 경계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는 천국 및 지옥과 다가올 심판이 있다고(히 9:27)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심판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세상에서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최후에 천국으로 갈 지 지옥으로 갈 지를 결정한다. 천국과 지옥과 마지막 심판은 모두 영원의 차원 안에서 존재하고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두 사상의 지평선 뒤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부록1 참고), 과학으로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다.[4] 그러나, 이것은 그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개념은 완벽하게 과학적이며, 그것들은 사실상 최고의 현실이다. 따라서, 무신론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물질주의적 신조, 즉,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공간-시간 연속체가 유일한 실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론자와 무신론자 등의 사람들은 위험을 각오하고 이것을 무시한다. (Russel Grigg, Creation ex nihilo, Vol. 21, No. 2, 1999) 창조

(부록3)가외의 차원과 하나님 - 경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차원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해 주는 흥미로운 방법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때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순간마다 변화하는 관점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등 생각이 지나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급진적인 창조론자'(그들 역시 Wilder-Smith의 '평지' 개념을 종종 사용한다)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10차원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이 발견은 다소간 성경을 확증해준다고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

첫째로, 이것에 관하여 얘기해 주는 성경적 가르침은 없다. 둘째로, 이 불확실한 관념은 끈 이론(string theory)라고 하는, 고도로 추상적이며 이론(異論)이 분분한 분야의 물리학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론은 11차원을 가정하는 초끈 이론(superstring theory)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이론 역시 실험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론의 제안자에 따르면, 이들 가정상의 차원 중 일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상당히 작은 공간으로 말려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사고(thinking)에 있어서 오늘날의 과학(예를 들어, '빅뱅', 10차원 등등)과 결혼한다면 내일은 홀아비/과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맞다.

IMPACT by Jerry Bergman, Ph.D (28) No. 393, 2006
길소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간사, 지질학, ssoya89@hanmail.net) 역

유신론적 진화론과 창조-진화 논쟁

(Theistic Evolution and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나의 대응 질문은, 과학자들이 정의하듯이 진화란 처음에는 자연발생(abiogenesis)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화를 증명할 때에만 진화론과 유신론을 조화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 정도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다윈주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윈주의를 버린 많은 과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목록이 그 증거로 포함된다.

또한 진화를 유신론과 '조화시키기' 위한 시도도 앞서가는 과학자들, 과학단체, 교육자들, 혹은 법정에 의해 수용된 적이 없다. 네이처(NATURE)지의 편집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화의 과정을 **형성했다**"(즉, 유신론적 진화론)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연구자들에게 부적절한 뉴스이다... 그것은 또한 과학적 이치의 핵심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지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짓는다(Nature, 2005, p. 1053).

창조론이 기사에서 제외되고 있듯이 유신론적 진화도 그렇다. 종교와 과학은 영원히 '분리된' 사고 영역으로 그 둘은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결합되어 단지 (대개 자연주의라고 불리는) 무신론적 진화만 남는다. 이렇게 평범한 책략은 효과적으로 유신론을 몰아 낸다. 즉, 자연주의적 진화는 (사실을 의미하는) 과학인 반면 모든 형태의 창조론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결론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종교라는 것이다.

네이처지는 그러면서 '신앙심이 깊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연구와 조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시했다(Brumfiel, 2005, p. 1062). 네이처 지 특집 기사에서 논의되었듯이, 세속적 대학에서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결국 크로커(Crocker) 교수와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처럼 해고되거나 그러한 논점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Nature, 2005, p. 1064).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Teaching Theistic Evolution Considered Dangerous)

가장 유명한 과학협회인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자기들의 공식 잡지에서 지적 설계를 '어떤 높은 지적 존재가 지구상에 생명체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견해'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Bhattacharjee, 2005, p. 627). Bhattacharjee는 이러한 유신론적 진화 관점은 대부분의 캔자스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설계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캔자스를 첨단기술의 회사, 대학교 그리고 다른 지식 기반 연구자들에게 탐탁지 않은 위치에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캔자스 대학의 생물학자이자 교육위원회의 26인 과학 기준 문서 위원회(26-member science standards writing committee)의 의장인 스티브 케이스(Steve Case)가 캔자스에서 K-12(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교육을 과학지식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지적설계를 가르치는 것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2005, p. 627).

그 기사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고 가르치는 것이 '과학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첨단기술 산업이 캔자스로 옮겨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생명체 창조에 있어서 역할을 했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결정하는 조사가 명백히 요구된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이 논점에 대해서 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완료된 조사에 따르면 그 반대가 사실임을 보여준다(Bliss, 1978). 더 말하자면, 세계적인 주된 과학 저널과 단체가 주장하는 입장이 '위협'이고 '대부분의 캔자스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것이 모든 미국인들 중에서 90퍼센트 가까이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Nussbaum, 2005). **기원에 관한 신념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서, 885명을 대상으로 하는 2005년 CBS 뉴스와 뉴욕 타임즈의 여론조사는 일반 대중의 55퍼센트가 창조론자였고, 32퍼센트가 유신론적 진화론자였으며, 단지 13퍼센트만이 정통 다윈주의자**(주된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임을 확인했다.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높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창조와 지적설계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대교 신학교와 HCD 연구에 의해 2005년에 여론 조사를 받은 1,482명의 미국 의사들 중에서 60%의 무슬림과 63%의 개신교, 49%의 가톨릭, 그리고 18%의 유대교 의사들이 창조나 지적 설계를 지지했다(오차 범위는 ±3%). '더 높은 지적 존재가 지구상에 생명체를 창조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위협이 되는 대신에, (종종 우리 교육계와 주된 과학 저널, 그리고 과학단체를 지배하는 사람들인) 13퍼센트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적어도 나머지 사람들의 학문적 자유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예로는

> 과학 및 교육부 장관인 마리아 밴 덜 회벤(Maria Van der Hoeven)이 최근에 '지적설계'(ID)-창조주의 존재만이 생명체 세계의 엄청난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동-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고무할 계획을 발표했다...(Enserink, 2005, p. 1394).

그녀의 토론 제안에 대한 결과로, 많은 저명한 생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자인 '밴 덜 회벤'을 '교회와 정부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도 또한 곧

> 네덜란드 하원의원 국회에서 빗발치는 적대적 질문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교실에서 지적설계를 소개하기를 원하는 캔자스 교육 위원회 위원에 비유되었다. "그녀는 암흑시대(서로마 제국의 멸망(476년)부터 1000년경까지의 유럽 시대; 넓게는 중세(the Middle Ages) 전체)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Enserink, 2005, p. 1394).

'단지 창조주의 존재만이 생명체 세계의 엄청난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제기하자는 단순한 주장에 대한 이토록 적대적인 반응은 90퍼센트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관점에 대해 교육자와 과학자들에 의한 그 정도의 반대를 묘사하고 있다. 밴 덜 회벤은 "자연에서 설계에 대한 생각은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델프트(Delft) 대학의 유명한 나노물리학자인 시스 디컬(Cees Dekker)"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이 밝혀졌다(Enserink, 2005, p. 1394).

10년도 더 전에, 버지니아 대학, 종교학과의 데이빗 리틀(David Little)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했다.

> 내 생각으로는 현 세계에서 종교와 공적 생활의 관계에 관해서 종교적 및 이념적 차별과 핍박에 대한 이슈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1990, p. 3).

위에서 토론된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의 기사에서처럼 밴 델 회벤 사건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진화의 과정을 형성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또한 종종 같은 문제, 혹은 창조론자들이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악화된 문제로 끝나게 된다. 예를 들면, "왜 생물학적 문헌으로부터 설계이론가들에 의한 재검토 기사(peer-reviewed articles)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윌리암 뎀스키(William Demski) 박사는 '지적설계에 대해 혹평적인 사람들은 생물학으로부터 지적설계를 없애는 것을 그들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를 출판하게 된다면 받게 될 괴롭힘을 피하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일단 '알려진' 설계 이론가들은 시달리고 장광설을 듣게 되며, "이후로 그들의 이름에 대해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사항은 지적설계와의 관련성이다. 심문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Welcome to the inquisition)" (Dembski, 2004, p. 305).

현대 다윈주의의 신학적 암시는 높은 수준의 논리성을 요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몹시 '우물쭈물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자들은

> 많은 자유 신학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자연 법칙을 통해 일하신다고 제안한다. 꿩 먹고 알도 먹으려고(have one's cake and eat it too) 노력하는 이런 어리석은 방식은 만약 종교가 무신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별될 수 없다면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Provine, 1988, p. 10).

프로빈(Provine)은 다윈주의와 유신론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 유력한 무신론자이거나 (2) 명백히 상황을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자이거나 (3) 어떠한 자그마한 증거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실체나 과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라고 말한다(Provine, 1988, p. 10).

프로빈은 "지적으로 정직한 크리스천 진화론자라는 입장"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오'라고 결론짓는다. 프로빈은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들의 머리를 '교회 출입문에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Provine, 1988, p. 10). 이것은 숀본(Schonborn) 추기경의 최근 성명으로부터 나온 외침에서 분명하다. "공통조상이라는 면에서는 진화가 사실일지도 모르나... 신다윈주의적 측면에서의 진화-유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무작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의 과정-는 사실이 아니다"(quoted in Holden, 2005, p. 996). 홀덴(Holden)은 '많은 과학자들을 어지럽힌' 다윈주의에 대한 숀본의 '공격'에 대해 과학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음에 주목했다. 바티칸 천문학자 사제인 조지 코인(George Coyne)은 "숀본을 반박하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유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무작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라는 관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떠맡았다" (Holden, 2005, p. 996).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유신론에 이보다 더 반대되는 관점을 상상하기가 힘들다.

결론 (Conclusion)

유신론적 진화는 분명히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창조-진화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한 가지는 앞서가는 교육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과학 단체들이 하나님을 포함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세계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현재 이러한 관점은 창조론보다 훨씬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논쟁에 대한 해결책은 과학이나 성경말씀이 아닌 것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에 근거를 둔 지식적 추론이 아닌 과학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The solution to the controversy is not to adopt a position that does justice to neither the science nor the Scriptures, but to advocate a position supported by the scientific data, and not science speculation based on naturalism). 창조

제 10장 맹목적인 물질이 진화하면'마음'이 만들어질까

다윈주의자들에 따르면 물리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 인간의 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하여 처리능력이 늘어났다. 뇌가 어떤 수준의 구조와 복잡성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인간은 '의식'을 갖게 되었다. 주관성, 감정, 희망, 간점, 자기인식, 자기 관찰, '내면의 자아의 숨겨진 목소리'가 갑자기 생겨났다. 오늘날 다윈주의자들은 의식적 경험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물리적 현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제 물리화학 법칙이 인간의 의식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의식 속에 물리적 뇌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고, 지각의 원인이 되는 '혼', '마음', '자아'라 불리는 비물질적 실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다윈주의 진화론이라는 자연주의적 이론을 반박하고 인류에게 그분의 형상을 불어놓은 창조주를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로 마음의 존재를 인용한다.

의견의 대립

현대 신경외과의 아버지로 유명한 와일더 펜필드는, 처음에는 의식이 두뇌의 신경활동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천 명 이상의 간질환자를 수술하면서, 그는 뇌와 마음이 상호작용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둘이 실제로 구별된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는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성경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16세기 존 칼뱅의 주장을 믿는 것이 정말 이성적일까?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성경의 주장은 믿을만한가? 아니면 MIT의 마빈 민스키의 유명한 말대로 인간의 뇌는 '살로 이루어진 컴퓨터'이고 의식은 전적으로 그것의 기계적인 생산물에 불과한 것인가? (성경은 인간이 몸(body)과 혼(soul)과 영(spirit)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구별되는 영과 혼을 말하고 있으므로, 영혼을 구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순전히 물리적인 설명을 찾는데 몰두하는 과학자들은(이들에게는 '물리주의자'라는 적당한 이름이 있다) 현재로서는 뇌가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솔직히 시인한다. 그들은 두뇌에서 어떻게 마음이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기대일 뿐이다.

여덟 번째 인터뷰 : J. P. 모어랜드 박사

모어랜드 박사는 미주리 대학에서 과학 훈련을 받았고 화학 학위를 땄다. 콜로라도 대학이 핵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구원 자리를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댈러스 신학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남가주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의식이란?

'의식'은 묘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의식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우리가 자기 관찰을 할 때 인식하는 것이다. 의식은 감각, 생각, 감정, 욕구, 신념, 자유로운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 인식하는 존재로 만든다. 영혼(혼)은 자아, 자신이며 의식을 포함한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시체가 된다.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몸과 구별이 된다.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이원론을 가르쳤다. 인간의 이러한 이원성이 대부분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이 공유하는 공통 지식이다.

그래도 인간이 순전히 물리적인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간이 신경세포들과 그에 관련된 분자들의 방대한 조합에서 나온 행동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물리주의자들이 옳다면,

물리주의 비판

비물질적인 영혼이 존재를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 = 의식은 두뇌작용의 산물이라고 한다.

(1) 물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물리적이라면 삼인칭 관점에서 모든 것을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일인칭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물리주의는 옳지 않다.

(2) 물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면, 자유의지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은 자연법칙의 완전한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내가 물질적 대상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환경과 유전자 등에 의해 고정되게 된다. 그러하면 내겐 선택을 내릴 자유가 없다는 뜻이 된다.

(3) 물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면, 육체에서 분리된 중간상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나의 뇌에 불과하다면 몸 밖에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최소한의 논거를 제공한다.

임사체험에 대한 견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후 믿을 만한 목격자들이 나중에 그분의 살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역사적 보강 증거이다.

적극적 주장

의식과 자아가 뇌의 물리적 작용에 불과하지 않다는 증거들;

1. 실험적 증거

(1)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 그들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머리나 눈을 돌리게 하거나, 말을 하게 하거나 침을 삼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환자들의 반응은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과 분리된 별도의 존재처럼 생각한다.

(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기 충격이 피부에 가해지고 그 충격이 대뇌 피질에 도착하는 시간과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지각하는 시간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자아가 자극을 받고 그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기계가 아님을 암시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비물질적 마음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철학적 논증

물리적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내 의식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뇌의 어떤 부분과 마음이 1대1 대응되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급속안구운동(REM)의 경우에도, 과학자들은 눈의 움직임과 뇌에서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인쇄한 출력물을 보고 뇌의 상태와 눈의 움직임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과학자는 누군가의 뇌를 연구해서 뇌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도록 부탁하지 않고는 그의 마음에 대해 알 수 없다. 의식 상태는 내면적이고 은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

영혼의 실재

수세기 동안 인간의 영혼은 시인들을 매혹시켰고, 신학자들을 사로잡았으며, 철학자들을 도전케 했고,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모어랜드는 영혼이 우리의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영혼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는 자신이 의식과 몸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내 의식이 바로 나라면, 내 의식이 달라질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식이 달라져도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의식과 나는 한 존재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의식을 담고 있는 '자아' 혹은 '영혼'이어야 한다.

몸도 마찬가지이다. 내 몸과 뇌는 나와 같은 존재일 수 없다. 수술을 받고 뇌의 53%를 제거한 간질환자는 43%의 사람일 수 없다. 사람은 조각으로 나눠질 수 없지만 뇌와 몸은 나눠질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내 몸과 다른 존재라는 뜻이다.

요점은, 나는 영혼이고, 나는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 o해 연구할 때 그 사람의 몸을 연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에 대해 열정을 갖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등을 발견함으로 그들에 대해 알게 된다. 즉, 사람들에 대해 알려고 할 때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한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반성을 하고 자기사고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영은 그 몸이 죽은 후에도 살지만, 동물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 (전 3:21)『인생의 혼(루아흐, spirit,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루아흐, spirit,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의식과 진화

의식의 출현은 신비이고, 유물론은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의식은 Big Bang의 여파로 예상되지 않은, 우주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은 그 이전 것으로부터 어떻게 생겨났을까? 의식이 있고, 살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생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를, 그런 것이 없는 물질에게서 어떻게 얻었을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얻는 것이다.

물리적 물질에다 물리적 과정을 가하면 물리적 재료들의 배열이 달라진다. 그것은 더 복잡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물질이다. 결국 물리적 재료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는 할지언정 완전히 비물리적인 그 무엇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진화를 통해 충분한 용량을 갖추게 되면, 의식은 생물학적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생겨난다고 믿는다.

문제점

(1) 그들은 물질을 더 이상 무신론자와 자연주의자의 입장, 즉, 물리화학 법칙으로 완전히 기술할 수 있는 무생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 단계의 복잡성 이전에 물질이 마음을 출현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적당한 순간이 되자 이 잠재력들이 활성화되어 갑자기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주의가 아니라 범신론이다.

이제 그들은 세상이 그저 물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재료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잠재적인 정신적 특성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출현**에 반대하기도 어려워졌다.

물질이 어떤 단계의 복잡성이 이를 때 유한한 마음이 출현할 수 있다면, 수백만 가지 뇌의 상태가 더 큰 수준의 의식에 이를 때 훨씬 더 커다란 마음, 즉, 하나님이 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그 과정을 자신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싶어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다. 그들은 물질에서 아주 큰 하나님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2) 그들은 여전히 결정론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의식이 뇌의 한 기능에 불과하다면, 나는 내 뇌이고 내 뇌는 물리화학 법칙에 따라 기능하기 때문이다.

(3) 마음이 초월적 지성의 지도 없이 출현했다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이거나 옳다고 믿을 수 있을까? 특히 이론적 사고의 영역에서 말이다.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진화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론적 사고는 생물의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4) 내 마음이 뇌의 한 가지 기능에 불과하다면, 통합된 자아는 없을 것이다. 뇌를 자르는 수술의 경우를 다시 보자. 뇌를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은 1/2 인간이 아닌 것이다. 그는 통합된 자아이다. 그의 의식과 영혼이 그의 뇌와 구별된 실재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연역

무신론자들은 의식이 맹목적인 물질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지에 관해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다만 장차 이루어질 과학적 발견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다윈주의 진화론으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의식이 특정한 방식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식의 기원은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무에서 유를 얻는 방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존재 덕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지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내 몸의 어느 부분에도 위치하지 않으면서 내 몸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의 일부를 잃어도 영혼의 일부를 잃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다. 영혼이 몸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공간을 차지하신다. 공간이 반으로 잘린다 해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존재하실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 자아는 절대적 마음이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적 자아에서만 적합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물리적 뇌와 신체 부위의 총합 그 이상의 존재다. 나는 영혼이고 몸을 가졌다. 창조

참 아름다워라 (13)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구요?
서종학 (목사, 신학, cbcnet@chol.com)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구요?

다윈의 진화론의 기본 개념은 무생물에서 아메바->원생동물->무척추동물->척추동물(->어류->양서류->파충류->조류->포유류(원숭이 포함)->사람)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기원은 원숭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원숭이도 그 이전에는 다른 동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오늘날 현대과학의 유전자 연구에서도 원숭이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유사성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98%이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의 신체구조(해부학적 구조)는 어느 동물과 가장 유사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원숭이와 모든 신체 구조가 유사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가지씩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가장 유사한 심장 구조를 가진 동물은 돼지입니다. 눈은 놀랍게도 바다에 사는 오징어와 해부학적 구조가 가장 닮았습니다. 젖의 성분은 당나귀의 젖과 가장 비슷합니다. 사람은 페스트(흑사병)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죠. 그러나 원숭이는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설치류(이빨을 가는 동물)인 쥐나 토끼는 흑사병이 걸립니다. 동물의 피는 고유한 비중(무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러 가면 피 한두 방울을 먼저 채취해서 혈액형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떤 액체가 들어있는 작은 시험관에 떨어뜨려 봐서 위에 뜨면 빈혈이라고 해서 헌혈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혈액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와 그 비중이 가장 유사한 동물은 놀랍게도 양서류인 개구리의 피입니다.

위의 사실을 가지고 진화의 계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장 : 원숭이 -> 돼지 -> 사람
눈 : 원숭이 -> 오징어 -> 사람
젖 : 원숭이 -> 당나귀 -> 사람
흑사병 : 원숭이 -> 쥐 -> 사람
혈액비중 : 원숭이 -> 개구리 -> 사람

외형적인 골격구조 외에는 유전자가 그렇게 닮았다는 원숭이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효소나 단백질의 구조에서도 이 땅위에 사는 생물들이 많은 유사성은 있지만 그 계통이 진화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과학, 마이클 덴턴 저, 한국창조과학회출판)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